



2024년 7월 7일(제1201호) 연중 제1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예수님의 자기비움으로의 초대”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육화 사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던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커다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초월적인 분이, 시간이라는 한계 상황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셨고, 창조 활동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같아지셨습니다.

즉, 인간의 인생의 흐름인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는 모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지내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아집에 사로잡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행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고집합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그 친척들을 다 알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

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마치 1독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하듯 완고함과 뻣뻣함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굳은 마음 앞에서 예수님도 몇몇 병자들만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는 대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이 세상에 오더라도, 인간의 응답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독서 사도 바오로도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함과 모욕과 재난과 박해와 역경 가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과 은총에, 함께 하도록 초대를 받는 것이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재훈(요셉) 신부
제주해군(해군 제7기동전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에제 2,2-5

회 답 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 2 독 시

2코린 12,7ㄴ-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마르 6,1-6

영 성 재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열다섯 번째 시집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그를 대하는 눈초리가 사나웠습니다. 그 친구는 한편으로 (천주교를 알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전적으로 물리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진리에) 굽주린 영혼을 최대한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친구가 정말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베드로의 성실성을 믿지 못하여 속마음을 주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찾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친구와 그 마을의 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천주교에 입교할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부터 천주경, 성모경, 천주십계,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을 배워 암송하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나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가 길에 많은 친구들과 여러 연인들을 만났으나, 지난날 그들과의 사귀를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또 끊어버리고 싸워서 더 큰 승리를 거두어야 할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는 모친과 형제들, (아내는 이미 사망하였으나) 첩들, 남종, 여종, 가문의 세력, 조상들의 위패, 매우 많은 친구, 친척, 굉장한 눈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라도 남겨 두면 적을 정복하지 못하고 승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친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모친에게 밝히면서 천주교의 주요한 진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친도 자기와 함께 천주교 신앙을 믿기를 바란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분하여 울고불고 헐박까지 하면서 그의 결심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님처럼

사랑을 줘야,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을 줘야,
사랑을 얻을 수 있지.

내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신 님 닳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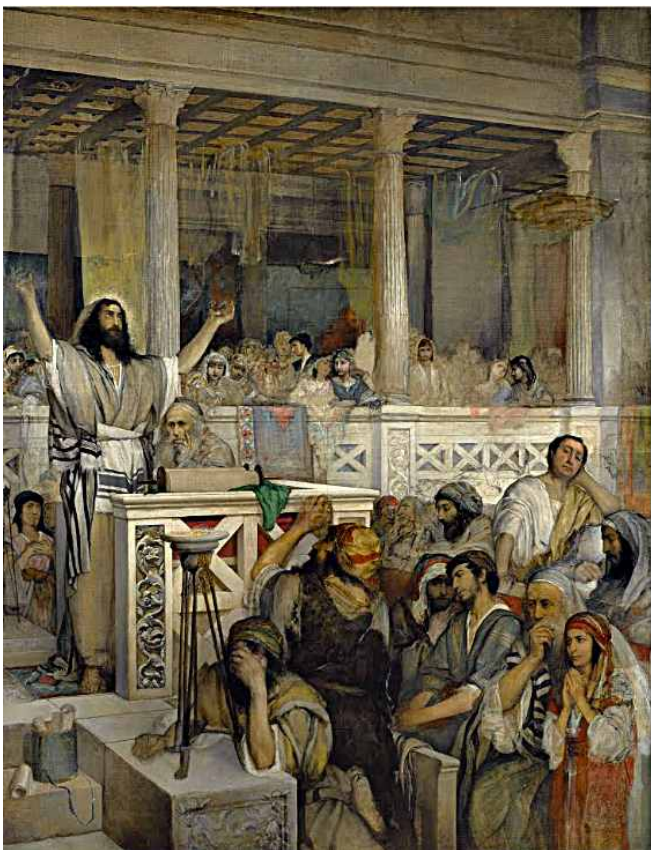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카피르나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안타깝게도 23살에 요절한 화가인 모리시 고트리엠편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짧은 생애라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본 작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도 중 걸치는 솔을 머리에 걸치시고 회당에 모인 군중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군중은 각각 각색의 반응을 하고 있다. 이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군중들의 반응과도 비슷하다.

맨 아래쪽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인물은 작가를 그린 자화상인데, 다소 체념한 듯한 자세에서 화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화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본 작품은 미완성인데, 본 작품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화가가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모리시 고트리엠편, 1878년~1879년경 제작
비르사비 국립미술관, 폴란드

인식일이 되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시 이렇게 말하였다.

“지 사람이 어디시 지 모든 것을 임했을까? 지린 지혜를 어디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지린 기적들이 일어나디니!

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기?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기?”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뜻미땅히게 여겼다. (마르 6,2-3)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4주일: 해군교육사 김기수 신부

◆ 교구장 통장

- 상무대(상무대)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7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7월 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